

WE ONLY THINK MEAT SAFETY

안전한 축산물
하나만 생각합니다



사단 한국축산물처리협회
법인 Korea Meat Slaughterhouse Association

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도축장 대응(상황 예시)

첫째 날

1. 보건소 지정
검사 대상자, 검사 실시
2. 당일 도축 작업 완료
3. 직원, 코로나 검사
4. 검사 후 전원 자가 격리
5. 익일 도축 작업 중지 조치
(기타) 지육, 냉장실 보관
(기타) 계류 중 소, 돼지 대기

둘째 날(확진자 발생 시)

1. 대표자 출근 및 역학조사 협조
2. 당일 도축 작업 중지
3. 직원, 코로나 검사 결과 확인
4. 밀접 접촉자, 분류자는 2주간 자가 격리
(지육) 냉장실 보관
(계류장) 자체 물량은 대기, 그외는 반출

셋째 날

1. 작업 전 소독 실시
2. 결과 음성 작업자 작업
3. 밀접 접촉자,
2주간 자가 격리
(도축) 첫째날 계류분 도축
(지육) 첫째날 도축 분 출고

대응 흐름(시간 순)

- 보건소 지정 검사 대상자 : 코로나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통해 보건소에서 즉시 검사 실시를 지정하는 사람
- 밀접 접촉자 : 확진자와 동선이 많이 겹치는 사람
(2미터 내 밀폐공간에서 생활, 근무한 사람 / 확진자와 5분 이상 대화를 나눈 사람)

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도축장 대응(상황 예시 - 세부내용)

<p>첫째날 [검사자 발생]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코로나 확진자의 역학조사에 따른 검사자 안내(보건소 → 검사 대상자) 2. 검사자는 작업 중이어도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 후 검사(검사 후 즉시 귀가 후 자가격리) 3. 당일 도축 작업 완료 후 지육은 냉장실 보관, 직원은 코로나 검사(건물의 배치,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검사) 4. 추가 검사자들은 검사 후 자가격리 <p>- 이르면, 당일 저녁(밤) 확진 최초 검사자 결과 확인 가능</p>
<p>둘째날 [확진자 발생 시] 소독 → 작업중지</p>	<p>- 전일 검사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 했을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표자(혹은 담당자)는 도축장에 출근하여 해당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 2. 확진자 발생에 따른 도축 작업 정지 및 소독 3. 전일 검사자 결과 확인 및 밀접접촉자 분류 시 2주간 자가격리 시행 <p>- 전일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 실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계류장 내 계류 중인 소, 돼지 중 도축장 자체 소, 돼지는 대기, 그 외는 반출 5. 전일 도축 후 냉장 보관 중인 지육은 냉장 보관 유지
<p>셋째날 [확진자 발생 시] 소독 → 작업 재개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작업 전 소독 실시 2. 전일 검사 결과 음성인 직원 출근 후 도축 작업 진행 3. 첫째날부터 계류 중이었던 소, 돼지부터 우선적 도축작업 4. 냉장 보관 중이던 지육 반출